

야고보서 35번째 말씀

교회 장로들의 중요 사역

본문: 야고보서 5:13-16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병든** 자가 누구를 청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병든자”, “장로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 교회는 병든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란 육체적으로 특별한 병이 든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한테 가든지 특별한 치유 사역자를 불러야지 왜 장로들을 불러라고 했을까요? 존 맥아더 목사는 여기 병든자는 단지 육체적인 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병든 자란 많은 피박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 하던 야고보서의 독자들 가운데 믿음이 다 소진되어 영적으로 무력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서신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연약한 신자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14장 1절과 2절,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1절과 12절에서도 영적인 약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무력함, 영적 약함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는 성격의 연약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날에도 교회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더 이상 악한 세상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을 여기서 병든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즈음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영적인 갈증을

채울 방법이 없다. 작장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위로 받을 길이 없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격지만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대화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능력 있고 충만한 장로들의 기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II. 장로들의 사역이 매우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란 영적으로 충만해서 무력한 양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말한 장로들은 감독자들, 목사들,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그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들은 경건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강력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능력있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15)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16). 그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입니다. 사도행전 6:4에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주 업무가 기도라는 것을 천명 했습니다. 교회 행정이나 예산을 관리하는 것 구제, 사회 사업등은 다 집사를 택하여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했습니다. 전무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전무 한다는 것은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기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일은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기도하되 기름을 발라 주라고 했습니다.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상처난 영혼을 사랑의 기름을 발라 상처를 싸매 주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영적으로 상처가 많은 성도들에게는 먼저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합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아픔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장로들의 사랑과 기도로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한 한 여선생님의 소개로 심방을 갔습니다. 시력이 아주 안 좋아 두꺼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닦지 않아 먼지가 가득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수줍어 나의 얼굴을 바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건강이 너무 나빠 주일에는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나가다 상처를 받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항상 하숙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심방을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조금 마음 문을 열고 매주는 교회 나갈 수 없고 한 달에 두 번은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일만큼은 교회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10일조 만큼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 아주 신실한 자매와 결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매가 머리술이 적다고 거절했지만 설득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세 아들

을 두었는데 둘은 대학교수가 되었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라 교회 건물을 자주 옮겨 다녔는데 항상 교회를 따라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사를 간 곳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항상 빠지지 않고 교회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주고 기도해 주는 장로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우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장로, 목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아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것 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조차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당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연약한 영혼들, 상처 많은 영혼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무한 절대적인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유명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 하되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 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한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 전하해야 합니다. 기도의 땀을 많이 흘린 자가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양떼들은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강한 성도가 됩니다,

나는 **조질 물러**가 고아 사업의 성공자라고만 알았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 보니 그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다 보니 연약한 성도들을 돕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연약한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수없이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많은 영혼 들이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섬기는 연약한 양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주석 책을 많이 읽고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읽고 책상 앞에서 연구를 많이 해도 기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연약한 양 떼들을 깊이 알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연약한 양떼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 브레너드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인디안들의 아버지로 존경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회개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들, 곧 목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는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당신은 하루 몇 시간 개인 기도를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것은 실례가 되는 질문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새벽기도 심방 기도 등이 바빠 개인 기도를 거의 못 한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묵회하면서 개인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개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격려합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기 도가 없이는 양 떼들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하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는 적어도 하루 2시간은 개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 하는 목사들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